

전주 제련공원 화장실

인간과 문화중심의 도시 - 전주



김 완 주 (전주시장)

개선사업 배경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전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하여 다시 찾고 싶은 전주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생활수준에 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999년부터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목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악취가 나고 불결한 화장실을 시민들에게 "청결하게 사용하여 달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계적인 시설개선과 청결사용 캠페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차 년도인 금년 말까지 「청결화장실 본격 추진의 해」로 정하고 부족한 곳에는 신속하고 오래된 화장실은 정비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차 년도인 내년 말까지 「선진화장실문화 정착의

해」로 하여 시민홍보 및 청결캠페인을 병행 실시하여 3차 년도인 2003년부터 「화장실 문화를 통한 관광산업 기반확립의 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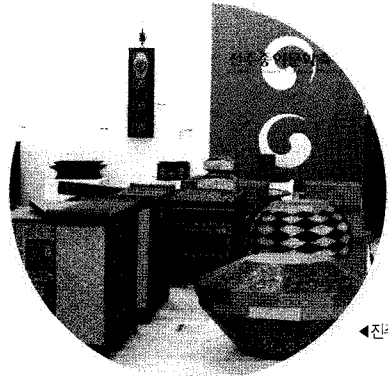
화장실별 현황과 개선

화장실의 이용자 특성에 맞게 주유소, 시장 및 할인점 등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까지 공중 화장실(267개소)에 포함하고 식품접객 업소(6,324개소) 및 수거식 화장실인 재래식화장실(3,227개소)도 분뇨의 지하 침출로 인한 수질 예방 차원에서 정비·개량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지확보 문제로 신속이 어려운 지역은 개방 화장실(46개소)로 지정하고 민간소유 화장실 중에서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베스트화장실(33개소)로 선정하여 홍보함으로써 자율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

년차별로 총35억원 정도 투자되는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은 공중화장실 신축(11개소)과 정비 (46개소)를 하고 금년에는 식품접객업소 및 주유소등 민간소유 화장실 개선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지정된 업소는 장기 저리로 식품 진흥기금 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화장실개선 비용으로 융자하여 주고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및 쓰레기통, 포장용지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개방화장실 및 베스트화장실에 인센티브(월 10만원) 를 부여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주 종이문화 축제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공공시설 청소 매주 토요일 실시

화장실문화 개선의 3대 모범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전주시를 방문하여 '화장실은 전주에 가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큼 모범적으로 개선활동을 추진중인 전주의 화장실문화 개선사업 과정을 들어본다.

유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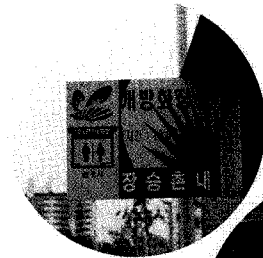
시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책임 관리와 예산절감 및 인력관리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66개소)하고 업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의 책임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 카드를 비치하여 1일 3회 이상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시민자원 봉사회 등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청결활동(매주 토요일)을 실시하여 시민 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청결한 화장실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하여 청결 사용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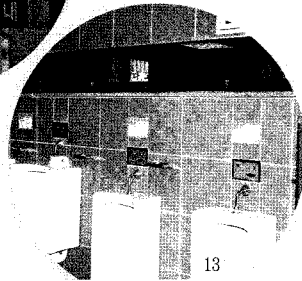
◀진주 종이문화 축제-전주는 조선시대 부터 최상품의 한지를 생산했던 고장이다.

전주월드컵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2002년 월드컵은 전주가 이제까지의 침체된 분위기에서 녹색생태 도시, 문화예술도시, 지식 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청결한 화장실 문화와 21세기 새로운 인류문화 창출에 노력하는 우리 전주는 분명 전주를 방문 하시는 모든 분들께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개방화장실 표사-업소의 영업시간에 맞추어 영업시간 또는 24시 개방



▶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